地理學論叢, 第16號, 1989年 12月, pp.1~17

韓國都市의 機能的 特性과 類型分類*

朴 英 漢**

《차 례》

1. 序 言
2. 都市機能分類法과 資料
3. 都市體系의 機能的 諸特性
4. 都市類型과 그 特性
5. 結 論
English Summary

1. 序 言

本 硏究는 都市體系的 觀點에서 市級都市의 機能的 特性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韓國都市의 類型分類를 시도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때 한국의 도시는 오랜 세월 동안에 行政機能 우위의 前産業型都市體系를 유지하여 오다가 開港과 더불어 都市機能이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日帝時代에 접어들면서 효과적인 자원 수탈을 위한 植民地政策의 수행으로 항구 도시가 급성장하였으며, 한반도의 병참 기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광산개발과 군수산업의 육성으로 特殊機能都市가 출현하게 되었다.

민족해방과 더불어 한국동란을 겪는 과정에서 수많은 越南人口와 離農民이 도시로 집중하였다. 이러한 인구의 대부분은 생산적 산업기반의 약화로 인하여 제 3 차 산업활동에 편입된 결과, 韓國都市는 都市基盤活動의 비율이 극히 낮은 소위 消費都市的 성격을 지니고, 도시의 機能分化가 미약한 前近代的 機能構造를 나타내었다.[1)]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으로 진전된 급속한 工業化는 韓國社會를 크게 변모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를 통한 産業構造變動은 도시의 특성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도시의 산업종사자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1960년에 20.5%이던 것이 1970년에 27.8%, 1980년에는 35.4%로 생산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제조업의 규모에서도 200인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이 1960년의 24%에서 1980년에는 61%로 폭증하였다. 이처럼 근대적 생산수단을 갖춘 대기업이 주축을 이루어 질적 개편도 일어났다.

공업화와 더불어 사회변동을 야기시킨 都市化는 인간활동의 무대를 농촌에서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1960년 5만이상 도시의 인구가 28%이던 것이 1970년에 41%, 1980년에는 57%에 달하여 전국 인구의 절반이상이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고, 도시數도 1960년의 27개에서 1980년에는 40개로 증가함으로써 한국사회는 都市社會로 이행되었다.

이러한 社會構造變動은 都市機能의 分化를 자극하게 되고, 도시활동의 다양성과 더불어 도시적 삶의 양식도 복잡성을 더해갔다. 따라서, 도시의 기능적 특성의 분석을 통한 類型化의 시도는 한국사회구조의 실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적 삶의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틀

* 본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1) 朴英漢, 1970, "韓國都市의 經濟的 構造分析", 駱山地理, 第1號,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地理學科, pp.11~19.

을 제공해 줄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結節地域의 核으로서의 도시는 주변지역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 變動因으로 작용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機能的 都市類型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재조명과 함께 地方時代를 열어가는 현시점에서 의의있는 과제라고 본다.

都市의 機能分類는 都市體系內에서 諸都市의 역할을 주로 경제적 기능에 의하여 유형화하는 것이다.[2] 그러나, 도시의 기능적 유형은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사회적 특성이 복합됨으로서 도시의 특질이 명확히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80년의 40개의 市級都市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指標에 의한 도시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국도시의 類型과 그 內的 特性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의 都市類型形成에 미친 社會的 原動力을 구명하고자 한다.

2. 都市機能分類法과 資料

지금까지 한국에서 행하여진 都市機能分類에 관한 硏究方法은 대체로 다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하나는 일정 도시가 수행하는 여러 기능 중에서 經濟活動을 중시하여, 경제 기능의 전문화 정도에 따라서 지배적인 기능 또는 特化機能을 추출한 분류법이다. 이것은 도시의 산업별 인구 구성비가 都市住民의 經濟社會的·政治的 活動을 반영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各都市의 機能 相互間의 관련성을 충분히 해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이러한 분류법에 의한 한국도시의 기능 연구는 李漢淳(1960, 1965), 洪慶姬(1965, 1982), 朴成鎬(1966), 李琦錫(1977) 等에 의하여 시도된 바 있다.[4] 이러한 방법에 의한 연구들은 도시의 기능적 유형을 단순히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서 都市特性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 하나는 各都市는 都市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라는 인식하에서 유사성을 바탕으로 개별도시의 기능적 특성을 유형화한 多變量分類法이다. 이것은 도시란 경제적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복합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방법을 응용한 연구는 成俊鏞(1980)과 朱京植(1982)에 의하여 수행되었다.[5] 이들 연구는 도시시스템의 분석에 치중한 결과 都市分類는 도시가 수행하는 기본활동이 부각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적·공간적 指標가 혼용된 느낌이 든다.

本 硏究에서의 都市機能의 類型分類는 都市體系的 觀點에서 因子分析法을 원용하고, 이를 토대로 기능적 유사성을 판별하는데 유용한 Ward 法에 의한 클래스터 분석법을 사용하여 類型化를 시도하였다.

都市體系分析에 투입된 자료는 표 1에 보는 바와 같이 도시규모를 비롯하여 도시 기능 수행의 주체자의 경제적·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31개 變數이다. 입력 자료는 경제기획원의 '198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를 활용하였다. 産業 및 職業에 관한 자료는 15% 표본조사라는 약점이 있으나, 자료의 유용성은 인정된다고 보여 진다.

3. 都市의 機能的 諸特性
—都市體系의 次元分析—

都市體系의 各次元(dimension)은 都市群의 종합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40個 도시를 대상으로 31個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복합한 主成分分析을 행한 결과, 固有値가 1.0 이상인 成分은 6個가 도출되었다. 第7成分

2) R.J. Johnston (edited), 1981,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p.124.
3) 成俊鏞, 1980, "韓國의 都市시스템", 李琦錫 外 共著, 1980, 韓國의 都市와 村落硏究, 寶晉齋, pp.174~175.
4) 諸硏究에 대한 성과 분석은 필자의 "韓國都市地理學의 硏究動向과 都市理解의 方向" (地理學論叢 第10號)를 참조.
5) 成俊鏞, 1980, op. cit., pp.173~207. 朱京植, 1982, "韓國の 都市化と 都市システム : 1960~1980年" 地理學評論 第55卷 第1號 pp.1~20.

표 1. 人 力 變 數

No.	Name of Variable	Definitions
1	AGRICULT	% of agriculture to total empolyment(TE)
2	MINING	% of mining to TE
3	MANUFACT	% of manufacturing to TE
4	WHRETAIL	% of wholesale and retail trade to TE
5	TRANPORT	%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to TE
6	FINANCE	% of finance and insurance to TE
7	PERSONAL	% of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to TE
8	LABOR	% of employment to population 14 years of age and over
9	FLABOR	% of female empolyment to total employment
10	MYHOUSE	% of owned occupation to total housing units
11	PROFESS	%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workers to TE
12	MANAGER	% of administrative and managerial workers to TE
13	CLERICAL	% of clerical workers to TE
14	SALES	% of sales workers to TE
15	SERVICE	% of service workers to TE
16	MANUAL	% of production and related workers to TE
17	EMPLOYER	% of employer in status of workers
18	SELFEMPL	% of own account worker in status of workers
19	WORKER	% of employee in status of workers
20	POPULATN	Total population (1980)
21	POP7580	Rate of population increase between 1975 and 1980 years
22	AGE15	% of the population under 15 years of age
23	AGE1524	% of the population 15～24 years of age
24	AGE2564	% of the population 25～64 years of age
25	AGE65	% of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26	DENSITY	population density
27	SCHOOL	% of the population 15～19 years of schooling
28	PRIMARY	% of the primary school gradute to the population over 15 years of age
29	COLLEGE	% of the college gradudate to the population over 15 years of age
30	NEWS	% of the number of households reading newspaper
31	STATUS	% of service and production workers to TE

은 固有値가 0.99로서 1.0에 매우 접근하며 第8成分 (0.75)과는 격차가 심하므로 第7成分을 포함시켰다. 固有値가 1.0이상인 6개 成分의 說明量은 全變動說明量의 85.6%에 달하며, 第7成分을 포함하면 全變動量의 88.7%의 설명력을 지닌다.

各次元을 설명하기 위하여 7個 成分에 대하여 베리막스 直交 回轉을 행하여 7個 因子에 대한 負荷量을 산출하고, 40個市의 各因子에 대한 因子得點을 구하여 標準化하였다. 표 2는 7個 因子의 入力變數와 因子負荷量을, 표 3은 都市別 因子得點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도시의 기능적 특성을 7個集團으로 대별하여 그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第1因子

이 因子는 固有値가 11.0으로 全變動의 35.5%를 설명한다. 0.7이상의 높은 正의 負荷値를 나타내는 變數는 농업 종사자의 비율을 비롯하여 65세 이상의 인구율, 종사상의 지위 중에서 자영업주의 비율, 주민의 교육수준에서 국졸 및 그 이하의 비율 및 自家所有率이며, 0.3이상의 正의 負荷量을 지닌 變數는 사회 및 개인 서어비스업, 판매종사자의 비율, 15세 이하 인구율 및 15～19세 취학률이다.

표 2. 因 子 負 荷 量

No.	Name of variables	ROTATED FACTOR PATTER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1	AGRICULT	0.879	−0.257	−0.141	−0.225	−0.010	0.205	0.053
2	MINING	0.216	−0.091	−0.083	0.052	−0.056	0.118	0.902
3	MANUFACT	−0.785	0.024	−0.372	−0.420	0.005	−0.103	−0.169
4	WHRETAIL	0.323	0.232	0.213	0.872	0.031	0.093	0.035
5	TRANPORT	0.291	0.047	0.399	0.599	−0.077	0.064	0.426
6	FINANCE	−0.284	0.760	0.317	0.288	0.013	−0.190	0.035
7	PERSONAL	0.308	0.051	0.744	0.483	0.099	−0.190	−0.088
8	LABOR	−0.214	−0.023	−0.747	−0.479	0.146	−0.034	−0.046
9	FLABOR	0.141	0.024	−0.330	0.005	0.785	−0.243	−0.235
10	MYHOUSE	0.894	−0.106	−0.042	0.030	−0.046	0.045	0.041
11	PROFESS	−0.001	0.167	0.924	0.135	0.102	−0.044	−0.063
12	MANAGER	−0.103	0.923	0.014	0.066	−0.030	0.147	0.000
13	CLERICAL	−0.433	0.517	0.469	0.142	−0.217	−0.355	0.157
14	SALES	0.310	0.331	0.239	0.736	0.096	0.189	0.093
15	SERVICE	0.025	−0.026	0.311	0.814	−0.071	−0.245	−0.056
16	MANUAL	−0.836	−0.078	−0.347	−0.314	0.021	−0.077	−0.082
17	EMPLOYER	0.193	0.610	0.218	0.549	0.106	0.211	−0.009
18	SELFEMPL	0.855	−0.237	0.146	0.184	0.023	0.054	0.028
19	WORKER	−0.905	0.154	−0.117	−0.208	−0.098	−0.135	−0.038
20	POPULATN	−0.053	0.895	−0.066	−0.003	−0.114	−0.170	−0.025
21	POP7580	−0.702	−0.010	−0.250	−0.452	0.087	−0.162	0.084
22	AGE15	0.327	−0.103	0.067	0.054	−0.300	0.824	0.177
23	AGE1524	−0.291	−0.005	0.081	−0.046	0.785	−0.499	−0.059
24	AGE2564	−0.179	0.179	−0.267	−0.023	−0.881	−0.169	−0.148
25	AGE65	0.868	−0.179	0.224	0.110	0.076	−0.040	0.123
26	DENSITY	−0.343	0.836	0.005	0.157	0.009	0.014	−0.132
27	SCHOOL	0.407	−0.064	0.745	0.311	0.013	0.186	−0.040
28	PRIMARY	0.746	−0.312	−0.200	0.166	0.075	0.335	0.216
29	COLLEGE	−0.299	0.647	0.160	0.043	0.082	−0.561	−0.029
30	NEWS	−0.531	0.603	−0.020	−0.102	−0.244	−0.266	−0.146
31	STATUS	0.003	−0.525	−0.604	−0.539	0.004	0.032	−0.113
Eigenvalues		10.997	8.166	2.835	2.208	1.270	1.037	0.985
Percentage of total variance		35.47	26.43	9.15	7.12	4.10	3.35	3.18

이와 반대로 0.7이하의 강한 負의 負荷量을 나타낸 變數는 제조업 종사자의 비율과 생산·운수 및 단순 노무자의 비율, 봉급 근로자의 비율, 인구 증가율 등이며, 사무직 비율, 인구밀도, 신문 구독률의 變數는 −0.3이하의 負荷量을 보인다. 따라서 이 因子는 「經濟構造」와 관련된 특성이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고도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상대적 낙후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 因子에 속한 各都市의 因子得點을 보면, 고도성장과정에서의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다. 1.0 이상의 高得點을 나타낸 도시는 속초, 삼천포, 동해, 순천, 경주이고, 원주, 강릉, 충주, 김천, 충무, 제주는 0.5 이상의 득점을 지닌다. 제주, 강릉, 경주 등의 관광도시를 제외하면, 도시의 인구 규모가 작고 成長中心地域에서 벗

표 3. 都市別 因子得點

No.	Name of city	Factor scores						
		1	2	3	4	5	6	7
1	Seoul	0.45	5.15	—	—	−0.73	−1.18	—
2	Pusan	−0.71	1.21	−0.94	0.37	−0.35	—	—
3	Inchŏn	−0.82	—	−0.30	−0.37	−0.75	−0.89	0.35
4	Suwon	−0.48	—	0.53	−0.39	−0.69	−1.22	—
5	Sŏngnam	−0.99	—	−1.56	0.40	—	0.66	−0.35
6	Ūijŏngbu	−0.37	−0.87	−1.27	1.91	−0.45	−1.53	−0.38
7	Anyang	−1.46	0.33	−0.40	—	—	−0.85	0.33
8	Puchŏn	−1.15	0.73	−0.76	−1.05	−0.39	−0.76	0.65
9	Chunchŏn	—	−0.35	1.26	0.73	0.44	−1.83	—
10	Wonju	0.70	−0.58	—	0.90	—	−1.15	−0.39
11	Tonghae	1.02	−0.59	−0.51	−1.07	−1.02	0.49	1.75
12	Kangnūng	0.53	−0.34	0.49	0.88	—	−1.16	1.65
13	Sokcho	2.56	−0.49	−0.80	−0.51	−1.10	−1.08	−0.82
14	Chŏngju	−0.30	—	1.41	−0.32	0.96	−0.64	—
15	Chungju	0.91	—	—	−0.54	—	—	2.84
16	Chechŏn	—	—	−0.88	0.93	—	1.12	3.85
17	Taejŏn	−0.72	0.65	0.88	—	0.59	0.71	—
18	Chŏnan	0.43	−0.46	—	−0.51	1.11	—	−0.54
19	Chŏnju	—	—	2.22	−0.68	—	0.41	—
20	Kunsan	—	−0.33	—	0.31	−0.32	0.86	−0.85
21	Iri	—	—	0.37	—	1.21	—	−0.39
22	Kwangju	−0.47	0.44	1.87	—	0.86	0.51	—
23	Mokpo	—	—	0.48	0.43	0.92	1.99	—
24	Yŏsu	—	—	−0.42	0.75	—	1.83	−0.61
25	Sunchŏn	1.37	—	1.01	−0.32	0.53	—	—
26	Taegu	−0.71	0.99	−0.59	0.90	0.75	—	−0.66
27	Pohang	−1.38	—	—	0.30	−1.86	0.62	—
28	Kyŏngju	1.45	−0.74	—	—	−0.55	−1.38	—
29	Kimchŏn	0.70	−0.51	—	0.68	—	−0.37	−0.63
30	Andong	—	−0.43	1.86	0.40	0.92	0.49	—
31	Kumi	−1.36	−0.95	−2.34	−1.97	3.39	−1.23	—
32	Yŏngju	—	−0.89	—	2.31	−0.39	0.33	—
33	Masan	−1.20	—	−0.62	0.57	0.71	—	−0.90
34	Ulsan	−1.60	−0.80	—	−1.12	−1.75	1.39	−0.37
35	Chinju	—	−0.35	—	—	1.09	—	−0.79
36	Changwon	−1.22	−0.97	0.70	−2.93	−1.59	—	−0.30
37	Chinhae	—	−0.98	0.35	—	−1.97	−0.85	−1.12
38	Chungmu	0.53	0.42	−1.60	1.40	—	1.75	−1.15
39	Samchŏnpo	2.70	0.30	−1.64	−1.95	0.34	1.45	−1.24
40	Cheju	0.77	0.71	0.97	−0.52	0.49	0.98	0.31

* Absolute value of factor scores greater than 0.3

어난 周邊地域 또는 受動地域의 農村中心都市이다. 이들 도시들은 사회변동과정에서 工業化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소외도시'라고 볼 수 있다.

소위 한국의 소외도시는 소규모 자영업주에 의하여 영위되는 낮은 계층의 中心地都市로서, 청장년층과 교육받은 인력을 성장지역에 빼앗김으로써 노년층과 노동의 質이 낮은 人力이 都市活動을 담당하는 비전없는 都市로 성격지워진다

한편, 1.0이하의 높은 負의 득점을 지닌 都市群은 성장핵심지역에 자리한 안양, 부천, 포항, 구미, 마산, 울산, 창원이다. 이들 도시들은 거대도시의 확산으로 생성된 주변도시이거나 급속한 공업화가 진전된 성장도시의 특성을 나타낸다.

높은 正·負의 득점을 지닌 도시들을 비교할 때, 第1因子는 성장핵으로부터 떨어진 농촌중심지 도시군과 성장핵에 인접한 特化都市群으로의 강한 대조를 보인다. 이 因子는 한국사회가 고도성장과 더불어 都市社會로의 변동과정에서 한국도시기능의 이중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2) 第2因子

이 因子는 固有値가 8.2로서 全變動量의 26.4%를 차지한다. 0.5 이상의 正의 負荷量을 나타내는 變數는 過大·過密을 상징하는 人口規模와 人口密度를 비롯하여 소위 white color 계층의 특성을 대변해주는 행정·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 금융·보험업, 자영업주의 비율, 대학 졸업자의 비율, 신문 구독율 등이다. 0.5이하의 負의 負荷値에 속하는 것은 사회계층상 하류층의 비율 變數이다.

이들 변수들이 암시하듯이 이 因子는 대체로 중류층 이상의 지위를 누리는 엘리뜨 집단이 주도하는 기능적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第2因子는 「도시규모 및 관리기능」으로 불리워질 수 있다.

第2因子에 대한 각도시의 因子得點分布를 보면, 한국 경제권의 양대 거대도시인 서울과 부산이 1.0 이상의 正의 득점을 보이고, 그외에 대구, 대전, 제주 부천등이 0.5이상이다. 이와 반대로 0.5 이하의 負의 득점을 가진 도시는 의정부, 원주, 동해, 경주, 김천, 영주, 진해, 구미, 울산, 창원 등이다.

首位都市인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대전은 광범한 세력권을 지닌 상위 계층도시로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도시성장을 이끌어 온 최대거점도시들이다. 특히, 가장 높은 득점을 얻은 서울과 다른 대도시와의 득점 격차가 심한것은 '宗主都市化'라는 한국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1960년대 이후 근대화의 추진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집중과 더불어 제기능의 강한 偏在性을 나타낸 한국사회의 空間的 表出이라고 볼 수 있다.

(3) 第3因子

이 因子는 固有値가 2.8로서 全變動量의 9.2%를 설명한다. 0.7 이상의 높은 正의 負荷量을 나타낸 變數는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 전문기술 종사자 및 15~19세 취학율이며,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사무직 종사자 및 서어비스직 종사자등이 0.3 이상의 正의 관계에 있다. 한편, 0.3 이하의 負의 量을 가진 變數는 제조업, 14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의 비율, 여성 취업자 및 생산직 등이다. 상기의 관련 변수들을 종합하여 볼때, 第3因子는 육체적 노동 보다는 정신적 노동과 결합된 「專門事務서어비스構造」의 특성을 나타낸다.

사회·개인 서어비스업을 비롯한 전문직·사무직에는 공공 행정을 비롯한 위생·오락·문화서어비스와 의사·교원, 자유직 종사자를 포함하므로, 공간적 차원에서 넓은 배후지를 유지할 수 있는 質높은 중심기능을 제공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보여진다.

各都市의 因子得點에서 보듯이 京釜軸에서 벗어난 지역 중심도시인 춘천, 청주, 전주, 광주, 순천, 안동 등이 1.0 이상의 正의 득점을 나타내고, 수원, 대전, 창원, 제주는 0.5 이상이다. 0.5이상의 득점을 지니는 도시들은 광역 지방행정의 중심지이거나 4년제 대학이 입지한 대학도시들이다. 이와 반대로 0.5이하의 負의 도시들은 서울 주변도시인 성남·의정부·부천을 비롯하여 특수기능도시인 구미·충무·동해·제천·마산등이다. 그이외에도 부산과 대구는 행정 중심지이지만 工業化의 특성이 부각됨으로써 負의

관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第3因子는 지방행정·문화·교육분야에서 사무·전문인력이 활동하는 특성을 지니므로써, 工業化와의 결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 지방행정의 중심지가 都市體系上에 한 機能集團으로 자리잡고 있다.

(4) 第4因子

이 因子는 固有値가 2.2로서 全說明量의 7.1%를 차지한다. 도소매업을 비롯하여 판매 및 서어비스직의 變數가 0.7 이상의 높은 相關을 나타내며, 운수업과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 그리고 고용주의 비율 등이 0.4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편, 0.4 이하의 負의 相關을 보이는 變數는 제조업을 위시하여 취업자의 비율, 하류계층의 비율, 인구증가율 등이다. 상기의 관련변수의 특징을 결합하여 볼때, 이 因子는 제조업과 같은 생산활동의 결여로 인하여 취업자의 비율이 낮고 인구 성장이 정체된 현상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중소도시의 기능이었던 판매 및 서어비스 관련기능들이 높은 부하량을 나타냄으로써, 정신적 노동 보다는 육체적 노동의 비중이 큰 서어비스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各都市의 因子得點을 보면, 이 因子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의정부·영주·충무가 1.0 이상을, 춘천·원주·강릉·제천·여수·김천·마산·대구가 0.5 이상의 正의 득점을 나타내는 반면에, 부천·동해·구미·울산·창원 등이 1.0이하의 負의 득점을 나타낸다. 正의 득점을 지닌 도시들은 항만·철도 등의 교통기능과 관련되거나 군사적 기능과의 결합으로 중소도시적 상업 및 서어비스 활동이 부각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이 因子는 「商業 및 單純 서어비스 構造」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第5·6·7因子

第5因子는 固有値가 1.3이며, 全變動量의 4.1%를 설명하고 있다. 0.7이상의 높은 正의 부하량을 나타내는 변수는 여성 취업자의 비율과 15~24세 인구율 이며, 25~64세 인구비율은 0.9이하의 높은 負의 相關을 나타낸다. 15~24세 연령층은 고등학교와 대학에 在學할 연령이나 在學率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따라서, 이 因子에서는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던 젊은 미혼여성집단이 특징으로 부각된다. 연령구조의 불균형성을 고려할때, 第5因子는 「年令構成」特性으로 해석될 수 있다.

各都市의 因子得點을 보면, 천안·이리·구미 진주가 1.0 이상의 正의 득점을 지니고, 0.5 이상의 도시는 서울·인천·청주·대전·광주·목포·순천·대구·안동·마산 등이다. 이들 도시들은 여성인력의 비중이 높은 노동 집약적 공업단지도시와 서어비스 기능이 우세한 대도시로 분류된다. 이에 비하여 1.0이하의 강한 負의 득점을 가진 도시는 동해·속초·진해·포항·울산·창원 등으로 광공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남성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第6因子는 全變動의 3.4%를 차지한다. 15세 이하의 인구비율이 0.8이상의 높은 正의 상관을 보이며, 국졸이하의 학력이 0.3이상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대학졸업자의 비율을 비롯하여 사무직 비율과 15~24세 인구비율이 0.3 이하의 負의 관계를 보인다. 이 인자의 특성을 명확히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교육수준」 특성이라고 命名하고자 한다. 이 인자는 교육수준이 낮은 주민 집단이 중학교 재학 정도의 부양가족을 지니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듯 하다. 제천, 목포·여수·울산·충무·삼천포 등이 1.0 이상의 득점을 얻고 있다.

第7因子는 全變動의 3.2%를 차지한다. 광업종사자의 비율이 유일하게 0.9 이상의 正의 부하량을 나타내며, 나머지 변수는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1.0 이상의 得點都市는 충주·제천·동해·강릉 등이다. 따라서 第7因子는 광업이 特化된 「特殊因子」로 해석할 수 있다.

(6) 都市體系分析의 綜合的 解釋

지금까지 살펴본 7個因子중에서 第1,2,3因子가 全說明量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各因子의 비중을 고려하면, 위의 3個因子가 한국도시 시스템의 主流를 이룬다.

第1因子는 「工業化가 곧 近代化」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경제성장정책과 능률성을 강조한 불균형적 地域政策의 실시과정에서 工業化의 혜택을 입은 소위 「陽地都市」와 그 그늘에 묻혀버린 「陰地都市」의 특성을 대변하고 있다. 第2因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集積의 이익

을 표방함과 동시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의 政·經유착의 產室인 首都의 기능집중과 과대성장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第3因子는 都市體系形成에서 主宗의 지위에 있으나 工業化에서 소외된 廣域行政中心地의 기능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같은 한국도시의 특성은 근대화를 표방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나타난 工業化의 產物인 동시에 社會變動의 空間的 表出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한국의 엄청난 도시 및 지역문제의 근원을 이루었다고 사료된다.

4. 都市類型과 그 特性

全體都市體系에서 유사성에 의한 都市類型分類는 集團內의 分散은 最小로 하고 集團間의 분산은 最大로 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6] 본연구에서는 因子分析을 통하여 얻은 7個 都市次元을 통합하여 Ward法에 의한 클래스터 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한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距離急增의 變遷點을 기준으로 7個群을 얻었다. 그 중에서 서울과 구미는 各各 單獨群을 형성하고 있다.

都市의 기본기능은 經濟活動이므로 各 群의명칭은 경제적 의미를 중시하였다.[7] 都市의 類型別 特性을 설명하기 위하여 7個群과 因子와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표 4는 各群의 因子得點의 最高値와 最低値 및 平均得點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표 5는 各群別 個別都市의 因子得點의 强度를 계급화하였으며, 都市別 產業 및 職業의 特化度를 산출하였다. 특화도의 측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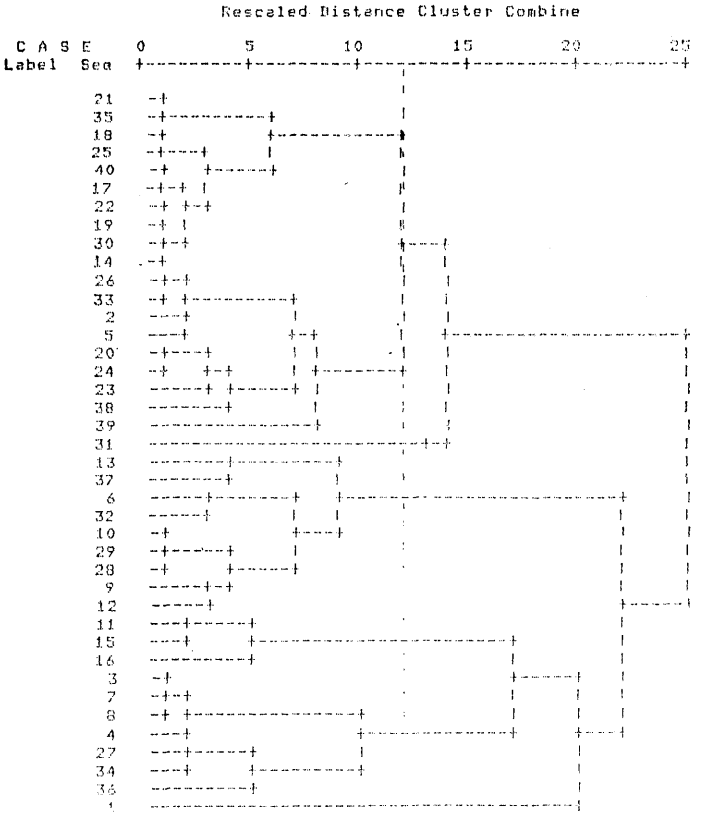

그림 1. Ward法에 의한 都市集團

6) 成俊鏞, 1980, *op. cit.*, p.199.

7) Norbert de Lange, 1980, Städtetypisierung in Nordrhein-Westfalen, Münstersche Geographische Arbeiten H. 8, Schöningh, S. 85~86.

표 4. 都市類型別 因子得點

Groups	Factors	I	II	III	IV	V	VI	VII
G 1		0.45	5.15	−0.21	−0.27	−0.73	−1.18	0.01
G 2	mean	−0.28	0.28	−0.74	0.35	0.16	0.98	−0.62
	max.	2.70	1.21	0.48	1.40	0.92	1.99	0.29
	min.	−1.20	−0.33	−1.64	−1.95	−0.35	0.01	−1.24
G 3	mean	−1.16	−0.08	−0.01	−0.79	−1.02	−0.21	0.10
	max.	−0.48	0.73	0.70	0.30	−0.10	1.39	0.65
	min.	−1.60	−0.97	−0.76	−2.93	−1.86	−1.22	−0.37
G 4	mean	0.64	−0.64	0.02	0.77	−0.44	−1.00	−0.23
	max.	2.56	−0.34	1.26	2.31	0.44	0.33	1.65
	min.	−0.37	−0.98	−1.27	−0.51	−1.97	−1.83	−1.12
G 5	mean	0.74	−0.35	−0.52	−0.22	−0.34	0.53	2.81
	max.	1.02	−0.20	−0.17	0.93	0.06	1.12	3.85
	min.	0.28	−0.59	−0.88	−1.07	−1.02	−0.03	1.75
G 6	mean	0.15	0.07	1.06	−0.16	0.80	0.25	−0.18
	max.	1.37	0.71	2.22	0.40	1.21	0.98	0.31
	min.	−0.72	−0.46	0.00	−0.68	0.18	−0.64	−0.79
G 7		−1.36	−0.95	−2.34	−1.97	3.39	−1.23	0.22

Nelson의 美國都市의 기능분류에 사용한 방법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의 복합에 의존하였다.[8)]

(1) 第1群 : 首位管理都市

이 類型의 都市는 서울뿐이다. 서울은 第2因子인 人口規模 및 管理機能의 特性이 매우 탁월하여 타도시와 구분되는 단독군을 형성한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都市化와 더불어 人口移動方向이 서울指向的 패턴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서울의 인구는 1980년 현재 800萬만을 넘어선 巨大都市로 급성장하였으며, 전국인구의 22.3%, 市級都市人口의 39%를 차지하는 강한 「人口規模特性」을 나타낸다. 또한, 서울은 한국도시의 차별적 성장과 관련하여 변함없이 宗主都市로 군림하고 있다. 또한, 諸機能의 集中은 人口集中을 능가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소매업·금융·보험업을 비롯하여 행정·관리직, 사무직, 판매직이 특화되고 있다. 특히, 행정·관리직 종사하는 전국의 61%가, 전문직 종사하는 34%가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은 首都의 지위를 누려온 이후, 特히 1960년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과정에서 政·經結合의 강화로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추 관리기능이 과도히 집중된 「首位管理都市」로서 전국을 지배·관리하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2) 第2群 : 複合都市

이 類型에는 부산·성남·대구·마산·군산·목포·여수·충무·삼천포 등의 9個都市가 포함된다. 이 群은 「敎育水準因子」를 비롯하여 「都市規模」 및 「商業·단순서어비스 構造」와 상대적으로 깊은 正의 關係를 지니는 반면에, 「鑛業特性」, 「事務서어비스構造」, 「經濟構造」와는 負의 관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群의 도시들은 삼천포를 제외하면 工業化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성장의 혜택을 다소 받아서 소외감이 크지 않는 10萬 이상 규모의 도시이며, 전통적인 판매와 서어비스 기능이 활발하다. 사회적으로는 주민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낮고 15세이하의 종속인구률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도시의 因子得點과 산업 및 직업구성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特化度를 나타내지 않고 여러 기능이 비교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複合機能都市」로 분류될 수 있다. 第2群은 클러스터 분석에서 보이

8) Nelson, Howard J., 1955, "A Service Classification of American Cities," Economic Geography, Vol. 31, pp. 189~210.

표 5. 類型別 都市 特性

Type of city	No. of city	Name of city	Factors							Variables											
			1	2	3	4	5	6	7	2	3	4	5	6	7	11	12	13	14	15	16
I	1	서 울	C	A	D	D	D	E	C		b	a		a	b	b	a	a	a	b	
II	2	부 산	D	B	D	C	D	C	D		b		b	b			a	b	b		a
	5	성 남	D	D	E	C	D	C	D		a		c		c	c		c			a
	20	군 산	D	D	C	C	D	C	D			b			b	b			b	b	b
	23	목 포	D	C	C	C	C	B	C	b		b	b	b	b		b		a		
	24	여 수	C	C	D	C	D	B	D			b	b	b			b		b	b	
	26	대 구	D	C	D	C	C	C	D		b	b		b		b	b		b		b
	33	마 산	E	D	D	C	C	C	D		a			b			b	b		b	a
	38	충 무	C	C	B	E	D	B	E			a					b		b	b	
	39	삼 천 포	A	C	E	E	C	B	E			c	c	c	c	c		c		c	c
III	3	인 천	D	C	D	D	D	D	C		a		b	b				b			a
	4	수 원	D	C	C	D	D	E	D		b			b	b	b		a			b
	7	안 양	E	C	D	C	D	D	C		a			a				a		b	b
	8	부 천	E	C	D	E	D	D	C		a		c	b	c	c	b	a		c	a
	27	포 항	E	D	D	C	E	C	C		b		b	b			b	b		b	b
	34	울 산	E	D	C	E	E	B	D		a	c	c	c	c	b		b	c		a
	36	창 원	E	D	C	F	E	C	D		a	c	c	c	c				c	c	a
IV	6	의 정 부	D	D	E	B	D	E	D		b		b		b	c			b	a	b
	9	춘 천	C	D	B	C	C	E	D			b	b	b	a	a		a	b	a	
	10	원 주	C	D	C	C	D	E	D			b			a	b			b	a	
	12	강 릉	C	D	C	C	C	E	B	a	c	b	a	b	b	b		b		a	c
	13	속 초	A	D	D	D	E	E	D		c	b		c	b		c	c	b		c
	28	경 주	B	D	D	C	D	E	D			b	b		b					b	c
	29	김 천	C	D	D	C	C	D	D			b	b	c	b					b	
	32	영 주	C	D	C	A	D	C	C		c	a	a		b	b			a	a	
	37	진 해	C	D	C	D	E	D	E						a		c	b		b	b
V	11	동 해	B	D	D	E	E	C	B	a			b	c		c		c			
	15	충 주	C	D	D	D	C	D	A	a			b			b			b		
	16	제 천	C	D	D	C	D	B	A	a		a	a			c			a		
VI	14	청 주	D	C	B	D	C	D	D					b	a	a		b	b	b	b
	17	대 전	D	C	C	C	C	C	D		b	b	b	b	b	b		b	b		b
	18	천 안	C	D	C	D	B	D	D		b					b		c			b
	19	전 주	C	C	A	D	C	C	D				b	a	a	a		b	b		
	21	이 리	C	D	C	D	B	C	D		b				b	b	b			b	b
	22	광 주	D	C	B	C	C	C	D		b	b	b	a	a	a	b	b	a	b	
	25	순 천	B	D	B	D	C	C	D		c	b	b		b	b			b		c
	30	안 동	C	D	B	C	C	C	D			b	a		a	a		b	a	b	
	35	진 주	C	D	C	C	B	C	D		b	b			b	b				b	b
	40	제 주	C	C	C	D	C	C	C		c	b	a	b	b	b	b	b		b	c
VII	31	구 미	E	D	F	E	A	E	C		a	c		c	c	c	c	c	c	c	a

*) Factor scores, A:2.0 or more B:1.0~2.0 C:0.0~1.0 D:0.0~−1.0 E:−1.0~−2.0 F:under −2.0

* Variables , a : M+ISD<i b : M<i<M+ISD c : M−ISD>i

는 것처럼 3個의 細群으로 나뉘어진다. 第1細群을 단독으로 형성하는 삼천포는 第1 및 第6因子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거의 대부분의 산업 및 직업구성이 평균이하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도시는 전형적인 소외도시의 표본으로서 정체된 복합기능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第2細群에 속하는 釜山·大邱·馬山·城南은 경제개발과정에서 혜택을 입은 「成長都市」에 속하며, 제조업과 생산직의 비중이 전국도시평균을 상회하는 대신에, 상업 및 서어비스의 비중이 도시평균을 하회하는 공업우위의 복합도시 성격을 지닌다. 第3細群은 群山, 木浦, 麗水, 忠武 등의 항구도시로서 상업 및 서어비스 기능 우위의 복합기능도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간의 기능 차이는 다소 있으나 第2群都市들은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都市活動이 전개되고 있다. 성남과 대구를 제외하면 모두가 항구도시로서, 항만의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工業化가 더욱 진전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3) 第3群 : 工業都市

第3群은 서울의 近郊都市인 仁川·水原·安養·富川을 비롯하여 東南海岸地域에서 工業化와 더불어 급속히 성장한 浦項·蔚山·昌原으로 구성된다. 이 類型은 第1, 4, 5因子와 강한 負의 관련성을 나타낸다. 이들 도시들은 지난 10년간에 걸친 경제개발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을 입은 變動의 主體者로서, 한국 도시 중에서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한 集團이다.

산업 및 직업구성에서, 제조업과 생산직 부문이 매우 높은 特化度를 나타내어 현대적 공업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工業化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택문제를 비롯한 각종 도시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 群도 서울의 近郊都市와 동남임해도시로 2個의 細群을 형성하고 있다. 前者는 수도 서울의 영향으로 금융·보험업과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전국도시의 평균치를 상회한 반면에, 後者는 事務職을 비롯하여 판매·서어비스 부문 직종이 前者에 비하여 미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諸都市의 因子得點分布에서도 양자간의 차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前者는 宗主都市의 郊外化現象으로 형성된 工業衛星都市로 불리워질 수 있으며, 後者는 '近代化의 상징'으로 표출된 近代的 工業都市라고 볼 수 있다.

(4) 第4群 : 商業·單純서어비스 都市

第4群은 議政府·春川·原州·江陵·東草·榮州·金泉·慶州·鎭海 等 9個都市로 구성되며, 경부축에서 떨어진 주변낙후지역인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에 대부분의 都市가 자리잡고 있다.

이 類型都市의 平均因子得點은 第1, 4因子와 正의 높은 관계를 지니고, 第2, 6因子와는 負의 관계를 나타낸다. 因子得點關係에서 보여 주듯이 第4群都市는 經濟開發過程에서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도시」의 특성이 강하다. 이처럼 工業化過程에서 밀려남에 따라 전통적인 中心地機能인 판매 또는 단순 서어비스업만이 존립하여 都市機能의 主種을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觀光 및 軍事的 消費機能이 부과됨으로써 이들 대부분의 도시들은 상업 및 단순 서어비스 기능이 부각되었다고 사료된다. 산업 및 직업 구성에서 보여 주듯이 도소매업을 비롯하여 운수·서어비스업의 비율이 전국도시평균을 상회하며, 특히 서어비스職이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 類型은 「商業 및 單純서어비스機能都市」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第4群都市는 生產的 經濟基盤의 약화로 人口成長이 정체되고 많은 노령인구가 잔존함과 동시에 自家保有率이 높다. 그러나,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촌적 요소가 가미된 정체적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5) 第5群 : 鑛業都市

이 類型都市는 鑛山原料指向型 工業과 관련된 東海, 忠州, 提川 等이다. 이 群은 第7因子인 「鑛業特性」과의 관계가 탁월하다. 그외에도 第1, 6因子에서 0.5 이상의 平均得點을 얻은 반면에, 第3因子와는 0.5 이하의 負의 득점을 얻었다. 이 類型은 鑛業종사자의 높은 特化度로 인하여 「鑛業都市」로 명명하였다. 소위 한국의 광업도시는 산업구조에서 전문·사무 서어비스가 결여되고 농촌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어 있다. 또한,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됨에 따라 근대적 공업기능이 미약하여 인구성장이 정체되고, 주민은 교육수준이 낮은 하류계층으로 구성되면서 종속인구률이 높은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이들 도시들은 小圈域의 中心都市로서 운수업과 판매직이 전국도시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6) 第6群 : 專門서어비스 都市

第6群의 都市는 淸市·大田·全州·光州·濟州·天安·裡里·順天·安東·晋州 等 10個의 地域中心都市로 구성된다. 이 類型은 「專門·事務서어비스構造」와 「年齡構成」因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第3因子는 사회 및 개인 서어비스업과 전문 기술직을 대변하며 사무직종과도 상당한 관련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第5因子는 15~24세 연령층을 부각시키고 있다. 산업 및 직업 구성에서도 因子의 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기술직에서는 모든 都市가 전국도시평균을 상회하며, 사회 및 개인 서어비스업에서는 천안을 제외한 모든 도시가 역시 전국도시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 群은 육체 노동에 의한 단순 서어비스 보다는 정신 노동에 의한 서어비스가 특징적이다. 제4차산업으로 불리우는 전문 서어비스는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생산적인 서어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類型은 「專門서어비스都市」라고 命名될 수 있다.

「專門서어비스都市」는 工業化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 인구성장의 속도가 완만하고 2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력의 비중이 낮으나 15~24세 인구율은 전국도시평균치를 상회한다. 大學을 위시한 많은 교육기관의 立地로 말미암아 이들 연령층의 교육기회도 매우 높으며, 교육도시로 불리워질 수 있다.

이 類型의 도시들은 2個의 細群으로 나뉘어진다. 안동을 제외하면 모두가 도청 소재지로 구성된 第1細群은 전문직뿐만 아니라 事務職도 전국도시의 평균치를 상회하며, 도소매업의 기능도 활발하다.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分權化가 강화되고 발전추진력의 요소가 가미된다면 도시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천안, 이리·순천·진주로 구성된 第2細群은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사무 및 판매직의 비중도 낮은 편이다.

(7) 第7群 : 特殊工業都市

第7群의 도시인 구미는 第1群과 같이 하나의 도시가 단독 群을 형성한다. 이 群은 여성취업자의 비율과 15~24세 인구비율이 월등히 높은 특성을 지니는 第5因子인 '연령구성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에, 工業都市 類型의 第3群에 비하여 第3 및 4因子와 강한 負의 득점을 얻고 있으므로 판매 및 서어비스 특성이 결여된 특이한 성격이 표출되고 있다. 산업 및 직업 구성에서도 제조업과 생산직이 고도의 特化現象을 보이고 상업 및 서어비스 기능이 전국도시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 群은 「特殊機工業都市」로 분류된다.

工業團地의 조성으로 구미읍과 칠곡군 仁同面을 통합하여 1978년에 市로 승격된 구미시는 한국도시 중에서 제조업의 특화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섬유 제조업과 전기기계 제조업의 종사자수가 제조업 취업자의 85%이상을 차지함과 동시에 여성취업자가 절반 가량이나 된다. 또한, 여성취업자 중에서 15~24세의 비율이 42%에 달한다. 따라서 구미는 경공업단지의 형성과 더불어 '젊은 여성노동자의 도시'로 불리울 수 있는 特殊工業都市이다.

(8) 都市類型形成에 관한 綜合的 考察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韓國都市의 機能的 類型은 클래스터분석을 행한 결과 7個의 集團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 第7群인 「特殊工業都市」는 제조업의 높은 特化度를 고려하여 「工業都市」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한국도시는 6個 類型으로 분류된다. 그림 2는 한국도시의 유형과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을 기능적 類似性에 따라 再組合하면, 中心機能都市(第4, 6群), 複合機能都市(第1, 2群), 特殊機能都市(第3, 5群)로 大別될 수 있다.

開港이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한국도시는 行政機能을 기반으로한 統治都市였으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상업과 서어비스 기능이 강화된 中心地都市가 20세기 중반까지 主流를 이루어왔다. 特化度에 의한 都市機能分類硏究에 의하면[9] 1960년의 27個市 중에서 鑛·工業特化都市는 2個에 불과하며, 各種産業이 도시체계내에서 고른

9) 洪慶姬, 1965, "韓國都市의 機能分類", 慶行大學校論文集, 9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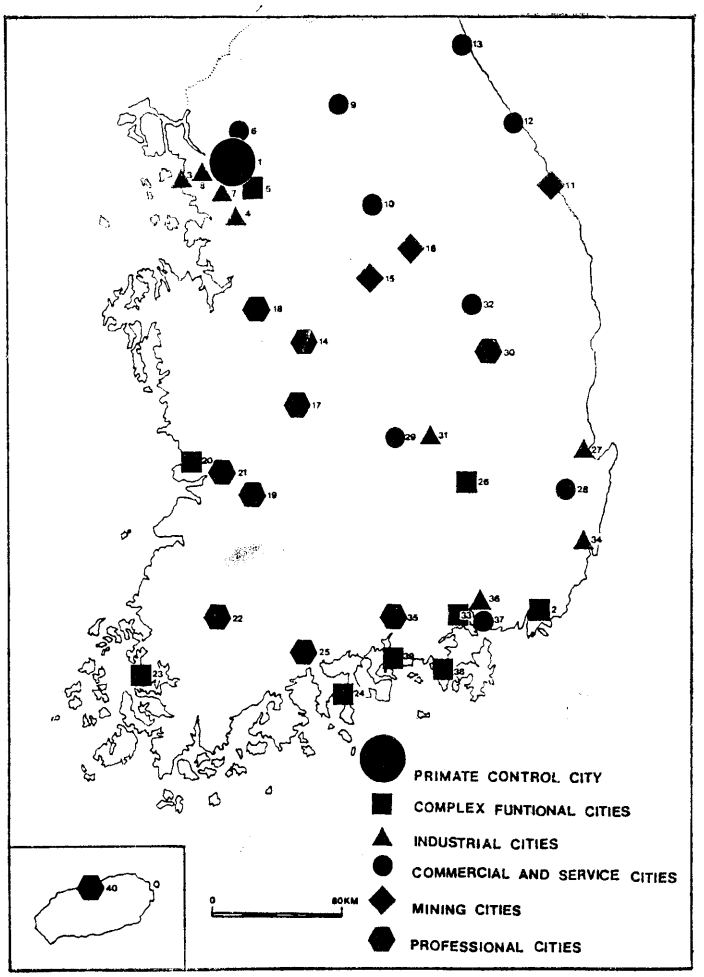

그림 2. 韓國都市類型分類

배분을 나타내는 標準型都市가 12個이고, 나머지는 도시기능이 미약하거나 상업·서비스가 특화된 複合機能都市로 분류된다. 따라서 韓國社會變動의 변환점에 처한 1960년의 都市類型은 근대적 기능分化가 미약한 中心地都市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1960년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개된 산업화, 도시화, 관료제화를 통한 한국사회의 재구조화는 새로운 원리가 지배하는 다원사회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으나 구조적 불균형을 동시에 낳게 했다.[10] 지난 20년간에 급속히 진행된 공업화와 도시화의 불균형적 전개는 이질성과 다양성을 고조시켰으며, 또한 정부관료제의 영향력의 증대로 말미암아 한국의 공업화 및 산업화정책은 재벌과 대산업자본가를 더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고, 관료적 권위주의의 등장을 재촉하였다.[11]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는 경제와 산업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등 제현상의 집중을 가속화시켰다.

이처럼 사회재구조화의 원리들이 都市體系에 투영됨으로써 韓國都市機能의 原型인 中心地都市가 질적인 변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도시체계 분석에서 도출된 第1因子인 「經濟構造特性」은 산업간·지역간 불균형적 성

10) 김일철, 1989, 한국사회의 재구조화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pp.3~5.
11) 한상진, 1983, 관료적 권위주의와 한국사회, 범문사, 김일철, 1989, *op. cit.*에서 재인용 pp.14~15.

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 성장이 「성장도시와 소외도시」라는 二重性을 표출시킨 主要因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第2因子인 「都市規模」 역시 산업화와 권위주의의 결합에 의한 차별적 도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사회 구조의 재편과정에서 관료주의적 산업화정책이 도시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工業化'가 현대 한국도시의 기능적 유형 형성에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도시는 工業化의 진전정도에 의하여

1) 工業化에서 소외된 도시집단—상업 및 서어비스 도시
2) 공업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도시집단—(상·공) 복합기능도시
3) 공업화의 주도하에서 형성된 도시집단—광공업도시

로의 변동과정에서 都市類型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금후 공업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都市類型은 더욱더 다양성을 띠우게 될 것이다.

5. 結　論

본연구는 비록 일정 시점의 자료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사회변동과정에서 韓國都市體系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며, 기능적 都市類型化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분석하고, 오늘의 都市類型形成에 작용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都市의 機能的 類型化는 都市體系를 형성하는 變數의 조합에 의존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都市特性 파악의 기반이 되는 産業活動과 그 활동수행의 주체자의 사회적 특성을 대변하는 職業 및 人口와 관련된 指標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였다. 1980년의 40個 市級都市를 대상으로 31個 變數의 조합에 의하여 도시시스템의 次元 分析과 클래스터 분석을 원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과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1. 도시 시스템의 차원분석에서 「經濟構造」와 「都市規模」를 비롯하여 「專門事務서어비스 構造」 「商業 및 單純서어비스構造」 「年齡構成」 「敎育水準」 및 「鑛業特性」 等의 7個 因子가 검출되었다. 특히, 전체 변동량의 62%를 설명하는 제1 및 제2因子는 변동하는 韓國都市의 機能的 特性을 대변해 주고 있다. 「經濟構造特性」은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성장과 소외'라는 경제적 이중성을 반영하며,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성장도시집단과 서어비스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소외도시집단으로 나누는 척도의 구실을 한다. 「都市規模特性」은 관리기능이 집중된 宗主都市構造를 설명한다.

위의 두 特性은 지난 20년간에 걸쳐서 한국사회변동을 주도해온 산업화·도시화·관료화가 한국도시체계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재구조화에 결정적 역할을 행한 工業化는 관료제화와 집적 이익을 표방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결합하여 불균형적 도시성장과 도시기능의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제3과 제4인자는 「상업 및 서어비스구조」로 복합되며, 한국도시의 原型인 中心地都市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시의 기능적 특성의 형성에 작용한 因子는 「경제구조」와 「도시규모」 및 「서어비스구조」로 대별되며, 이것이 전체 변동량의 78%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늘의 機能的 都市體系는 한국사회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성과 결합된 산업사회의 초기단계적 상황이 투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2. 한국도시의 유형은 도시 시스템의 諸因子와의 결합을 통해서 6個의 機能型으로 분류된다 첫째, 「都市規模」因子의 강한 영향으로 宗主都市인 서울이 단독형을 이룬다. 「首位管理都市」는 한국도시화의 특징인 宗主都市化와 더불어 경제성장을 주도한 관료제와 중앙집권주의의 결합에서 비롯된 중추관리기능의 집중에서 형성된 類型이다. 둘째, 사회변동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集團과 적게 받은 集團으로 大別된다. 이것은 「經濟構造特性」과의 관련도가 높다. 前者는 産業構造가 工業化로 나아가고 都市化의 진행속도가 빨랐던 成長都市이며, 일부의 「複合都市」와 「工業都市」가 대체로 이 集團에 속한다. 後者는 도시화의 속도가 느리고, 상업 및 서어비스 기능 우위의 소외도시이다. 이 集團은 육체적 노동과의 결합도가 높은 「商業 및 單純서어비스都市」와 소위 4차산업

으로 불리는 생산적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專門서어비스都市」로 나뉜다. 그외에도 농촌적 특성이 강하고 광업이 특화된 「鑛業都市」가 있다.

3. 오늘의 都市 類型은 도시화와 공업화가 도시체계에 누적된 결과의 표출이다. 금후 産業化와 都市化가 구조적 파행성에서 벗어나고 産業社會가 성숙된다면, 都市體系의 機能的 構造는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都市의 기능적 특성과 그 類型을 예측하는 것이 금후의 과제이다. 도시는 지역발전의 核인 동시에 變化의 중심지이며, 지역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체계분석의 기본적 문제점은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변수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본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부분적인 분석에 머물은 감이 든다.

Urban System and a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Korean Cities in 1980

Young-han Park*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a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Korean cities by the analysis of urban system in 1980, and to find out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what influenced to the urban system and the types of cities in the process of the reorganization of Korean society since 1960's.

All cities(shis) with more than 50,000 inhabitants have been included in the multivariate methods in conjunction with 31 variables concerning socio-economic and population structures. The arranged set of variables using factor analysis gathered from the data of 198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port conducted by the Economic Planning Board, Republic of Korea.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basic urban dimensions analysed in the study are reflected in the following set of components: 1) economic structure, 2) urban population size, 3) professional service functions, 4) commercial and simple service functions, 5) age composition, 6) educational level and family structure, 7) singular industry. The cumulative variances with seven factors are 89%, and factor 1 and 2 interpret especially 62% of the total variances. These two facto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bureacratism, the major factors in the process of the Korean social changes since 1960's. Especially the industrialisation accelerated the differential urban growth and the changes of the urban functions.

Factor 1 describes the dimension of economic structure. The stagnant cities in the less industrialized regions are marked by high positive factor scores. As opposed to this, cities with a higher manufacturing function and a higher growth rates of population are indicated by high negative scores. Cities —Puchon, Pohang, Ulsand and Changwon— in the industrialized regions are typical examples.

The dimension of urban population size is characterized by high population size and density, relative high proportions of white collar employment and educational level. Primate city, Seoul has the highest positive factor scores.

Factor 3 and 4 show the dimension of the service functions. Cities with higher scores are mostly the central place cities or military cities. Especially cities with higher positive scores in factor 3 express the higher centrality in the urban hierarchical structures.

2. The city classification produced seven categories by the cluster analysis: 1) The primate control city with dominant management functions, 2) complex functional cities, 3) industrial cities, 4) commercial and simple service cities, 5) mining cities, 6) professional service cities, 7) the special industrial city. A single special industrial city Kumi is involved in the group

*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industrial cities.

Figure 2 illustrates the results of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cities. Before 1960, the most Korean cities performed the administrative and the service functions as the central place cities. Meanwhile the proportion of the specialized function cities involving the industrial cities are rapidly increased in 1980. The service function cities were transformed into the commercial-industrial cities and industrial cities. The functional types of cities are determined by the degree of the industrialization in contemporary Korea.

3. The basic results of the approach express that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influence on the urban system and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cities. The functional structure of the urban system in Korea is basically characterized by the integration of the concepts of central place theory, urban economic base and growth pole.